

초등학교 예비교사의 음악교수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요구 분석*

최 미 영**

본 연구는 초등학교 예비교사의 음악교수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음악교수역량의 중요도와 현재 자신의 수행 수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교육요구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실습을 다녀온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음악심화 전공 4학년 예비교사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회수된 144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36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초등교사들은 음악교수역량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역량을 실제 수행하는 수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음악교수역량에 대해 예비초등교사들이 인식하는 중요도와 현재 수행 수준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비초등교사들은 전문성 영역의 하위 역량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현재 수행 수준의 인식도 다른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예비초등교사들은 학습자에 대한 지식, 음악수업의 구조화, 교수전략 선정, 동기부여, 상호작용, 전문성 계발에 대해 높은 교육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 주제어: 음악교수역량, 예비초등교사, 교육요구 분석, 초등음악교육

차 례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1. 음악교수역량
2. 초등교사의 음악교수역량 구성요소
3. 교사의 교육요구 분석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도구
3. 자료 분석

IV. 연구결과

1. 예비초등교사가 인식하는 음악교수역량의 중요도 및 현재 수행 수준
2. 음악교수역량에 대한 교육요구 분석

V. 결론 및 제언

* 이 논문은 2014년도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대구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부교수(choimiyoun@dnue.ac.kr)

I. 서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이다. 교사는 학교 교육비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투입요인으로, 학생들을 직접 대면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질 향상이 전제되지 않는 교육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바로 이러한 논리를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김이경 외, 2004).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의 질적 수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교사의 질 관리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최우선시 되고 있으며,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 규명 및 전문성 제고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적, 정의적, 도덕적 소양이나 특성을 밝히거나 잘 가르치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나타내는 행동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주력해 왔고,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교사의 교수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어떤 교사가 특정한 지적, 정의적, 행동적 특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교사가 반드시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교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특성과 함께 교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교수행동 전략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교사가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적절한 교수행동을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다소 미흡하였다(백순근 외, 2007).

그러므로 최근에는 이러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역량(competency)’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실제 교실 상황에서 발휘되는 실천적인 교수활동을 탐색하려는 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권혁운, 2011; 백순근 외, 2007). 일반적으로 역량은 조직 측면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이나 자질을 의미한다. 학교라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교사를 상정해 볼 때, 교사가 수행해야 할 다양한 직무 중 교과지도가 교육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교수역량은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이나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와 외국에서는 음악교사의 전문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음악교사의 교수역량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새롭게 변화가는 교육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음악교사가 가져야 할 교수역량이 무엇이며, 이러한 역량

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면서 미국의 경우, National Board of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2001)와 Music Teachers National Association(2004)에 의해 전문 음악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 기준이 개발되었고 National Association for Schools of Music(2005, 2013)이 마련한 신규음악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 기준은 음악교사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에 지침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해 음악과 수업전문성 기준이 개발되었다(임찬빈, 이경언, 2006).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교수 상황과 맥락에서 음악교수행동을 파악함으로써 실제 교실에서 발휘되는 교사의 음악교수역량을 밝혀 음악교사교육과 평가 및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효과적인 교수역량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주로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만 다루어왔고 교사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예비교사가 인식하는 음악교수역량에 대한 인식 실태를 분석하고, 음악교수역량에 대한 초등학교 예비교사의 교육요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인간의 행위는 그 행위에 대한 기대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의해 형성되므로 교수역량에 대한 인식은 실제 교수역량을 발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이창현, 1993; Gallow & Meek, 1981).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음악교수역량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음악교수역량의 중요도와 현재 자신의 수행 수준에 대한 인식 및 교육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음악교과 관련 교사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의 전문자질 향상 및 직무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음악교수역량에 대한 초등학교 예비교사의 중요도 인식 수준과 현재 수행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음악교수역량에 대한 초등학교 예비교사의 교육요구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음악교수역량

역량(competency)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감당하여 해낼 수 있는 힘”이

다. 역량은 ‘성공적인 실제 수행’ 즉 ‘실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강조하는 개념이다(Bridge, 1996). Spencer와 Spencer(1993)는 저서 “Competence at work”에서 역량을 특정 상황이나 직무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이끄는 개인의 잠재적 또는 내적 특성으로서 비교적 장시간 지속되는 행동 및 사고방식으로 정의하였고, 역량의 대표적인 내적 특성은 동기(motive), 특성(trait), 자아개념(self concept), 지식(knowledge), 기술(skill)의 5가지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역량은 일반적으로 조직 측면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뛰어난 직무성과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이나 자질을 의미한다.

교사의 직무수행영역에는 교과지도, 학생 생활지도, 특별활동지도, 학급관리 및 직책을 통한 행정업무 및 대인관계 등 다양한 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사의 역량은 다양한 직무영역별 하위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교과지도는 교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이와 관련된 교수역량은 교사가 가져야 하는 핵심적인 하위 역량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수업과 관련된 직무영역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때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교사의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백순근 외, 2007; 양지선, 유태명, 2010).

교수역량(teaching competency)은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으로, 선행연구(김정환, 이계연, 2005; 노혜란, 최미나, 2004; 백순근 외, 2007; 원효현, 1998; 이병기, 2007; Smith & Simpson, 1995)에서는 주로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의 지식, 기능, 태도의 집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교수역량의 개념 정의에는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교육이라 하지 않고 교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교과가 갖는 공통적인 특성과 동시에 교과별로 그 지도내용과 지도방법에서 고유한 특성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교수역량은 음악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으로, 교육 일반은 물론 음악교육영역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특질, 동기, 태도, 가치관 등 내적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행동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교수역량은 지식에 근거한 이론적 교수역량과 수행에 근거한 실천적 교수역량으로 구분된다. 이론적 교수역량은 음악교과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에 대해 잘 아는 능력과 관련이 깊으며, 실천적 교수역량은 음악교과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음악수업 상황에서 잘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관련이 깊다. 즉 이론적 교수역량은 교사가 성공적으로 음악교과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이해 능력으로, 음악교과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한 이해, 음악 교수·학습 상황과 관련된 이해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실천적 교수역량은 실제 음악교수 상황에서 교사가 성공적으로 음악교과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수행 능력으로, 음악교과교육 내용과 음악수업 활동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상호작용하고 음악 교수·학습 상황을 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동 전략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백순근 외, 2007). 따라서 음악교수역량은 교사가 음악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음악교과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한 이론적 이해 능력과 실천적 수행 능력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2. 초등교사의 음악교수역량 구성요소

음악교수역량의 구성요소는 음악교사 자격기준 및 음악수업 전문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미국 전문교사자격기준위원회(National Board of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는 전문 음악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으로 학생에 대한 지식, 음악적 지식과 기술, 평가 계획과 수행, 음악학습의 촉진, 학습 환경의 조성, 다양성의 존중, 협력, 반성, 전문성 개발 및 전문적 기여 등 8개 기준과 34개 하위요소를 제시하고 있다(2001). 전국음악교사협회(Music Teachers National Association)는 전문가로서의 준비, 전문적 교수실행, 전문적 교실 운영 및 관리, 전문가적 기질과 협력, 전문성 향상 등 5개 기준과 10개 하위요소로 음악교사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2004). 또한 교사교육인증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가 공인한 신규음악교사 자격기준은 크게 바람직한 속성, 음악역량, 교수역량으로 구분하고 있다(2013).

국내 연구로 교육과정평가원(2006)은 음악과 수업전문성 기준을 음악교사의 수업관련 직무에 대해 지식, 계획, 실천, 전문성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24개 세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미영(2014)은 일반적 수준의 교수역량 구성요소와 음악교사 자격기준 및 전문성 기준을 규명한 문헌 분석, 역량 규명 및 타당화, 역량 수정과 최종 승인의 IBSTPI 역량 개발 모델¹⁾ 3단계를 적용하여 초등교사의 음악 교수역량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있다.

1) IBSTPI(International Board of Standards for Training, Performance, and Instruction) 역량 개발 모델은 교수 설계자, 훈련 관리자, 교수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입증되어온 모델이다.

<표 1> 초등학교사의 음악교수역량 구성요소

영역	구성요소	T/P
전문 지식 및 기술	- 교과지식: 음악교과교육, 음악교과내용, 음악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이해 능력	T
	- 음악기술: 연주, 지휘, 작곡 등 음악수업에 필요한 실기 능력	T
	- 학습자에 대한 지식: 학습자의 발달 단계 및 특성에 대한 이론적 이해 능력	T
	-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 교수학습이론, 교수법, 교수전략, 교수설계, 교수자료, 교수환경에 대한 이론적 이해 능력	T
	- 평가에 대한 지식: 측정이론, 평가이론, 평가방법에 대한 이론적 이해 능력	T
수업 계획	- 음악수업의 목표 설정: 교수상황을 반영한 음악수업목표를 진술하는 능력	T/P
	- 음악수업의 구조화: 음악수업 내용 및 활동의 특성에 따라 위계적 혹은 관계적으로 분석·조직하는 능력	T/P
	- 교수전략 선정: 음악수업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는 교수전략을 선정하는 능력	T/P
	- 교수방법 및 자료 계획: 교수활동에 필요한 교수법 및 교수자료를 선정·개발하는 능력	T/P
	- 평가계획 및 도구 개발: 수업목표에 대한 평가를 계획하고 도구를 개발하는 능력	T/P
	- 음악수업계획서 작성: 계획대로 음악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하는 능력	P
	- 교수학습 환경 조성: 학습활동에 적합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고 학습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준비하는 능력	T/P
교수	- 선수학습 회상: 음악학습 내용 제시에 앞서 사전 지식과 경험을 점검·발전시키는 능력	P
	- 동기부여: 학습자 동기 유발 및 참여의 촉진과 유지시키는 능력	P
	- 교수법 및 교수전략 활용: 효과적인 교수법 및 교수전략을 적용·수정하는 능력	P
	- 교수매체 및 자료 활용: 음악학습 수행의 증진을 위해 매체 및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	P
	- 의사소통: 교과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의사소통하는 능력	P
	- 상호작용: 발문, 피드백 등의 제공을 통해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상호교류하는 능력	P
	- 학습정리: 음악수업 내용 및 활동을 요약하고 요점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	P
	- 학생관리 및 학급운영: 규칙을 정해 공정하게 지도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P

영역		구성요소	T/P
수업 평가		- 학습효과 평가: 수업계획서대로 평가 기준 및 도구를 적용하여 수업목표의 달성 여부를 수행하는 능력	P
		- 평가결과 해석 및 활용: 학습 결과에 대한 해석, 수업 계획 및 실행에 대한 점검, 수업 개선사항을 도출해내는 능력	P
전문성	전문적 책무성	- 전문성 계발: 음악교사로서 전문가 자질 개선을 위해 교수활동 전반에 걸쳐 반성·성찰하며 끊임없이 연구하는 능력	P
		- 리더십 및 협력: 음악학습의 증진을 위해 부모, 동료,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원과 협조를 구하는 능력	P
	전문 가적 기질	- 열정: 학습과 학습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는 능력	P
		- 성실: 가르치는 일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게을리 하지 않는 능력	P

(T: 이론적 능력, P: 실천적 능력)

초등교사의 음악교수역량은 전문지식 및 기술, 교수, 전문성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26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표 1). 전문지식 및 기술 영역은 교과지식, 음악기술, 학습자에 대한 지식,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 평가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된다. 교수 영역은 수업이 이루어지는 실제 과정을 고려하여 수업 계획, 수업 실행, 수업 평가로 다시 구분하여 수업 계획은 음악수업의 목표 설정, 음악수업의 구조화, 교수전략 선정, 교수방법 및 자료 계획, 평가계획 및 도구 개발, 음악수업계획서 작성, 교수학습 환경 조성으로 구성된다. 수업 실행에는 선수학습 회상, 동기부여, 교수법 및 교수전략 활용, 의사소통, 상호작용, 학습정리, 학생관리 및 학급운영이, 수업 평가에는 학습효과 평가, 평가결과 해석 및 활용이 각각 포함된다. 전문성 영역은 전문성 계발, 리더십 및 협력, 열정, 성실을 포함한다.

음악교수역량은 음악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이론적 교수역량과 이를 실행하고 적용하는 실천적 교수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과 기능적인 측면 외에 교육에 대한 사명감, 책무성, 협력 등과 같은 교사의 태도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

3. 교사의 교육요구 분석

요구분석은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기 위한 모든 분석활동으로, 조직 내 바람직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며,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본질

과 원인을 찾아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체계적인 과정과 절차이다(권대봉, 1999; 최정임, 2002). 이를 교육에 대입했을 때, 교육요구는 학습자가 처한 현재의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와의 차이로 이를 교육행위로 해결될 수 있는 상태이며, 교육요구분석은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수정, 보완하기 위해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격차를 결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권혁운, 2011).

많은 선행연구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교육요구분석의 중요성을 언급해왔다. Orlich(1989)는 교사의 교육요구를 분석하는 행위는 조사된 교육요구가 프로그램의 목적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방향을 제공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기영화(2001)는 학습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에 의한 학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성인 학습자의 교육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하였고, 최정임(2002)은 교육요구분석이 교육의 필요요성을 검증하는데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하였다. 권혁운(2011) 역시 교육요구분석은 교육 참여자와 그들의 직무, 조직 상황 등을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내용과 전달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첫 단계이며,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였다.

교사의 교육요구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Borich의 교육요구 분석방법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Borich(1980)는 교사의 요구분석 절차를 역량 항목의 선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실제 조사, 항목의 우선순위 결정, 선정된 항목을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 선정된 항목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수정의 과정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Borich의 교육요구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교육요구도} = \frac{\{\sum(RCL - PCL)\} \times RCL}{N}$$

RCL=요구되는 역량수준

PCL=현재의 역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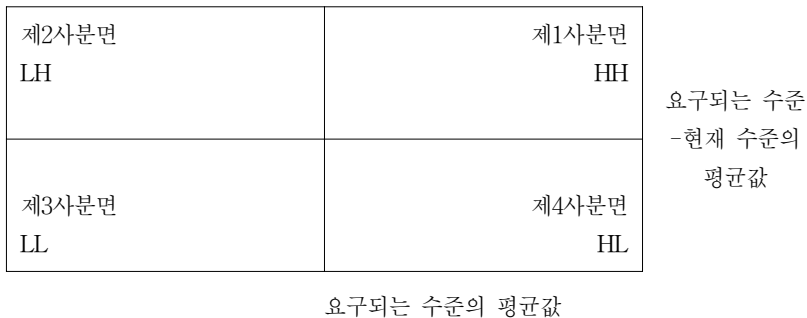
RCL=요구되는 역량의 평균

N=전체 사례수

RCL(Required Competency Level)은 요구되는 역량수준을, PCL(Present Competency Level)은 현재의 역량수준을 의미한다. RCL은 요구되는 역량수준의 평균이다. 개별 교사가 인식하는 요구되는 역량수준과 현재의 역량수준의 차이를 모두 합산하고 요구되는 역량수준의 평균값을 곱한 후 전체 사례수로 나눈 값이

교사의 교육요구도 값이 된다. 이 값을 기준으로 각 항목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Borich 교육요구도 공식으로 도출된 우선순위 정보는 어느 순위까지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조대연, 2009). 이러한 Borich 공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The Locus for Focus Model이 함께 활용된다(Mink et al., 1991). 이 모델은 2개의 축으로 구성된 좌표평면에 x축은 요구되는 역량수준의 평균값, y축은 요구되는 역량수준과 현재의 역량수준의 차이의 평균값으로 하여 요구되는 수준과 현재 수준에 따라 최우선순위군에 해당하는 요구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준다. The Locus for Focus Model의 공식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The Locus for Focus Model

[그림 1]에서 보듯이 제1사분면(HH분면)은 요구되는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와 요구되는 수준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분면으로 가장 교육요구도가 높은 최우선적인 요구군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제3사분면(LL분면)은 요구되는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와 요구되는 수준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분면으로 교육요구도가 가장 낮은 요구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교사의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급, 학교 소재, 학교 규모, 학력, 교직 경력, 성별, 학교 설립 유형 등의 변인에 따른 교사의 교육요구도 수준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주현준, 2008). 이러한 교사의 교육요구분석은 교사의 직무역량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음악교수역량에 대한 예비초등학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본 연구의 대상은 교육대학교의 교육실습을 다녀온 음악심화 전공 4학년 학생들이다. 교육실습을 다녀온 4학년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초등교사 양성 음악심화 교과과정의 대부분을 이수하여 예비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상태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표집의 편파성을 방지하기 위해 4개 지역의 예비교사를 상대로 설문지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설문지는 설문지의 의도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담긴 안내지를 함께 배포하여 응답자가 연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175부의 설문지가 배부되고 144부가 회수되어 82.3%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8개 설문지의 경우 결측치가 있어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36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빈도(%)	합계
성별	남자	38(27.9%)	136
	여자	98(72.1%)	
지역	경인지역	52(38.2%)	136
	충청지역	27(19.9%)	
	강원지역	25(18.4%)	
	대구지역	32(23.5%)	

성별을 기준으로 남자 예비교사가 38명(27.9%), 여자 예비교사가 98명(72.1%)이었다. 지역별 분포는 경기·인천 지역이 52명(38.2%), 충청 지역이 27명(19.9%), 강원 지역이 25명(18.4%), 대구 지역이 32명(23.5%)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예비초등학교사들의 음악교수역량에 대한 인식 실태와 교육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초등교사의 음악교수역량 연구(최미영, 2014)를 토대로 3개의 대영역, 6개의 중영역, 26개의 하위역

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설문 문항은 전문기술 및 지식 영역의 하위 역량 5개(교과 지식, 음악기술, 학습자에 대한 지식,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 평가에 대한 지식), 교수 영역에 대한 3개 중영역의 하위 역량 17개(음악수업의 목표 설정, 음악수업의 구조화, 교수전략 선정, 교수방법 및 자료 계획, 평가계획 및 도구 개발, 음악수업계획서 작성, 교수학습 환경 조성, 선수학습 회상, 동기부여, 교수법 및 교수전략 활용, 교수매체 및 자료 활용, 의사소통, 상호작용, 학습정리, 학생관리 및 학급운영, 학습효과 평가, 평가결과 해석 및 활용), 전문성 영역에 대한 2개 중영역의 하위 역량 4개(전문성 계발, 리더쉽 및 협력, 열정, 성실)를 반영하여 총 2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비초등교사들은 음악교수역량의 각 하위 역량에 대해 실제 음악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중요도), 그리고 현재 자신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현재수행 수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설문 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가 .60이상이면 신뢰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는데, <표 3>과 같이 문항 간 신뢰도가 .72에서 .93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가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 연구도구의 신뢰도

구분	문항 수	Cronbach's α
전문기술 및 지식	중요도	.72
	현재 수행 수준	.81
교수	중요도	.89
	현재 수행 수준	.93
전문성	중요도	.79
	현재 수행 수준	.79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예비초등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음악교수역량의 중요도와 현재 수행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 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각 음악교수역량에 대한 예비초등교사의 교육요구분석은 Borich의 교육요구도 공식과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예비초등교사가 인식하는 음악교수역량의 중요도 및 현재 수행 수준

1) 음악교수역량의 영역별 중요도 인식과 현재 수행 수준 인식

예비초등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음악교수역량의 영역별 중요도 및 현재 수행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영역별 중요도 및 현재 수행 수준에 대한 인식

영역	중요도		현재 수행 수준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문 기술 및 지식	4.16	.77	2.94	.85	13.78*
교수	4.06	.77	3.06	.83	13.66*
전문성	4.53	.61	3.34	.93	9.69*

* p.<.05

전문기술 및 지식 영역의 경우, 중요도 인식의 평균은 4.16으로 현재 수행 수준 인식의 평균 2.94보다 높았다. 또한 교수 영역은 중요도 인식의 평균 4.06과 현재 수행 수준 인식의 평균 3.06으로, 전문성 영역은 중요도 인식의 평균 4.53과 현재 수행 수준 인식의 평균 3.34로 각각 나타나 예비초등교사의 음악교수역량의 영역별 중요도 인식은 모두 현재 수행 수준 인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3개 영역별 중요도 인식과 현재 수행 수준 인식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악교수역량의 하위역량별 중요도 인식과 현재 수행 수준 인식

예비초등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음악교수역량의 하위역량별 중요도 및 현재 수행 수준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5>는 전문 기술 및 지식 영역의 하위 5개 역량에 대한 중요도 및 현재 수행 수준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예비초등교사는 전문 기술 및 지식 영역의 하위 5개 역량을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수행 수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전문 기술 및 지식 영역의 하위역량별 중요도 및 현재 수행 수준에 대한 인식

하위역량	중요도		현재 수행 수준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과지식	4.28	.73	3.17	.84	13.03*
음악기술	4.25	.74	3.23	.97	10.92*
학습자 지식	4.44	.72	2.90	.82	17.65*
교수학습지식	4.02	.84	2.88	.81	13.58*
평가지식	3.79	.83	2.51	.80	14.96*

*p.<.05

전문 기술 및 지식 영역의 중요도 인식 평균은 학습자에 대한 지식이 4.44로 가장 높았고 평가에 대한 지식이 3.79로 가장 낮았다. 현재 수행 수준 인식의 평균은 음악기술이 3.23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가에 대한 지식이 2.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6>은 예비초등교사들이 인식한 교수 영역의 하위 17개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 수행 수준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6> 교수 영역의 하위역량별 중요도 및 현재 수행 수준에 대한 인식

하위역량		중요도		현재 수행 수준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수업 계획	음악수업의 목표설정	3.89	.80	3.07	.82	9.58*
	음악수업의 구조화	4.17	.83	2.90	.87	14.36*
	교수전략 선정	4.26	.76	3.02	.76	13.89*
	교수방법 및 자료 계획	4.13	.76	3.00	.87	13.13*
	평가계획 및 도구 개발	3.73	.82	2.59	.83	12.77*
	음악수업계획서 작성	3.37	1.04	3.18	.93	2.02*
수업실 행	교수학습 환경 조성	3.93	.77	3.13	.87	9.50*
	선수학습 회상	3.75	.88	3.06	.79	7.83*
	동기부여	4.42	.67	3.28	.80	14.44*
	교수법 및 교수전략 활용	4.17	.78	3.10	.82	11.00*
	교수매체 및 자료 활용	4.07	.71	3.27	.87	10.28*
	의사소통	4.41	.67	3.27	.85	12.85*
	상호작용	4.54	.62	3.21	.84	16.88*
	학습정리	3.88	.86	3.18	.81	8.45*
	학생관리 및 학급운영	4.34	.71	2.97	.86	14.49*
	학습효과 평가	3.90	.73	2.96	.74	12.33*
수업평 가	평가결과 해석 및 활용	4.07	.77	2.83	.77	13.74*

*p.<.05

교수 영역의 하위 17개 역량에 대한 예비초등교사들의 인식 차이는 중요도에 비해 현재 수행 수준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인식 평균을 살펴보면 상호작용이 4.54, 동기부여와 의사소통이 각각 4.42과 4.41로 높게 나타났고, 음악수업계획서 작성이 3.37로 낮게 나타났다. 현재 수행 수준 인식은 동기부여가 3.28, 교수매체 및 자료 활용과 의사소통이 모두 3.27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가계획 및 도구 개발이 2.5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수 영역의 하위 역량 중 동기부여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의 중요도 인식과 현재 수행 수준 인식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표 7> 전문성 영역의 하위역량별 중요도 및 현재 수행 수준에 대한 인식

하위역량		중요도		현재 수행 수준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문적	전문성 계발	4.60	.625	3.13	.962	15.76*
책무성	리더십 및 협력	4.10	.81	2.80	.98	13.42*
전문가적	열정	4.71	.50	3.76	.83	13.38*
기질	성실	4.69	.51	3.68	.93	13.07*

*p.<.05

<표 7>은 전문성 영역의 하위 역량에 대한 예비초등교사들의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앞서 제시한 전문 기술 및 지식 영역과 교수 영역과 동일하게 예비초등교사들이 인식하는 전문성 영역의 중요도는 현재 수행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인식과 현재 수행 수준 인식의 평균은 모두 열정 역량이 각각 4.71과 3.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비초등교사들의 역량에 대한 인식은 모든 하위 역량에서 중요도 인식과 현재 수행 수준 인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2. 음악교수역량에 대한 교육요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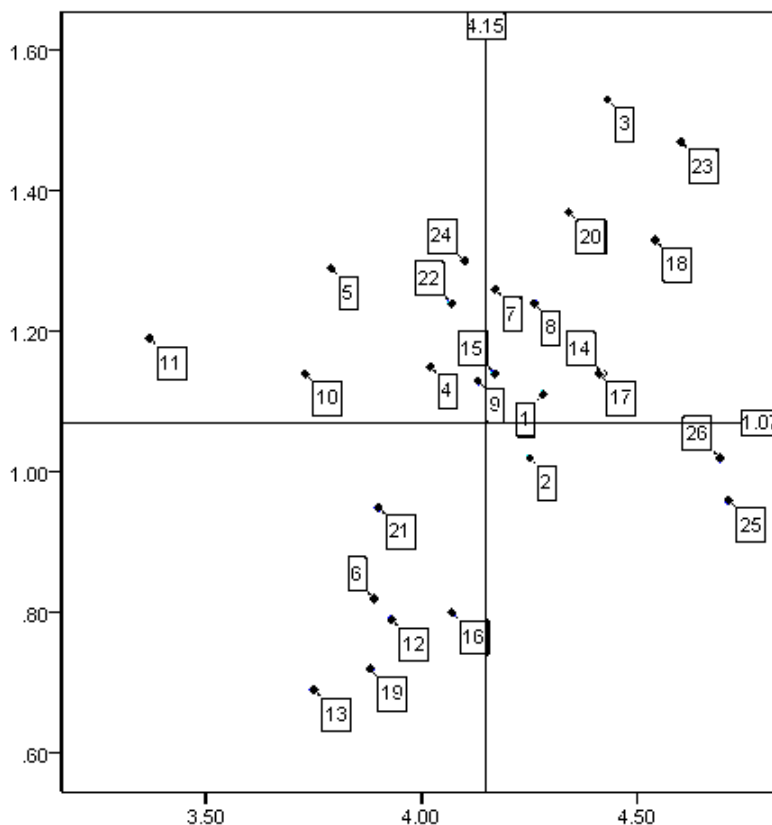
음악교수역량에 대한 3개 영역의 하위 26개 역량에 대한 초등학교 예비교사의 교육요구와 우선순위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예비초등교사의 교육요구를 Borich의 교육요구도 공식으로 산출한 결과 예비초등교사들의 교육요구 평균은 4.514로 나타났다. 전체 26개의 하위 역량 중에서 학습자에 대한 지식의 교육요구가 6.79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성 계발 6.765, 상호작용 6.042, 학생

관리 및 학급운영 5.93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악수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교육요구가 0.644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8> 음악교수역량에 대한 교육요구 및 우선순위

영역	하위역량	교육요구도	우선순위
전문 기술 및 지식	교과지식	4.752	14
	음악기술	4.344	18
	학습자 지식	6.790	1
	교수학습지식	4.611	16
	평가지식	4.877	11
교수	음악수업의 목표설정	3.204	22
	음악수업의 구조화	5.274	7
	교수전략 선정	5.294	6
	교수방법 및 자료 계획	4.646	15
	평가계획 및 도구 개발	4.251	19
	음악수업계획서 작성	0.644	26
	교수학습 환경 조성	3.121	23
	선수학습 회상	2.592	25
	동기부여	5.038	8
	교수법 및 교수전략 활용	4.753	13
	교수매체 및 자료 활용	3.262	21
	의사소통	5.026	10
	상호작용	6.042	3
	학습정리	2.796	24
	학생관리 및 학급운영	5.936	4
	학습효과 평가	3.699	20
	평가결과 해석 및 활용	5.028	9
전문성	전문성 개발	6.765	2
	리더십 및 협력	5.336	5
	열정	4.502	17
	성실	4.793	12
평균		4.514	

또한 The Locus for Focus Model를 활용하여 예비초등교사의 교육요구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한 교육요구도 우선순위

- 1: 교과지식, 2: 음악기술, 3: 학습자 지식, 4: 교수학습지식, 5: 평가 지식, 6: 음악수업의 목표설정,
 7: 음악수업의 구조화, 8: 교수전략 선정, 9: 교수방법 및 자료 계획, 10: 평가계획 및 도구 개발,
 11: 음악수업계획서 작성, 12: 교수학습 환경 조성, 13: 선수학습 회상, 14: 동기부여,
 15: 교수법 및 교수전략 활용, 16: 교수매체 및 자료 활용, 17: 의사소통, 18: 상호작용,
 19: 학습정리, 20: 학생관리 및 학급운영, 21: 학습효과 평가, 22: 평가결과 해석 및 활용,
 23: 전문성 개발, 24: 리더십 및 협력, 25: 성실, 26: 열정

예비초등교사의 음악교수역량의 중요도 인식 평균은 4.15이고, 중요도와 현재 수행 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 평균은 1.07이다. 중요도의 평균과 수준 차이의 평균을 축으로 하여 제4분면으로 구분해 보면, 제1분면의 영역이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수준 차이가 높은 분면이므로 높은 우선순위를 의미한다. 제1사분면에 포함되는 음악교수역량은 총 10개로 교과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 음악수업

의 구조화, 교수전략 선정, 동기부여, 교수법 및 교수전략 활용, 의사소통, 상호작용, 학생관리 및 학급운영, 전문성 계발로 나타났다.

<표 9> 성별과 지역에 따른 교육요구 및 우선순위

		교육요구도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성 별	남자	3.907	학습자 지식	전문성 계발	성실
	여자	4.760	전문성 계발	학습자 지식	학생관리 및 학급운영
지 역	경인	4.947	학습자 지식	전문성 계발	교수법 및 교수전략 활용
	충청	4.182	상호작용	평가계획 및 도구 개발	전문성 계발
	강원	4.348	학습자 지식	전문성 계발	의사소통
	대구	4.269	전문성 계발	학생관리 및 학급운영	교수전략 선정

한편, 성별에 따른 교육요구는 남자 예비초등교사의 교육요구는 3.907로 여자 예비초등교사의 교육요구 4.760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 남자 예비초등교사의 우선순위는 학습자에 대한 지식, 전문성 계발, 성실인 반면, 여자 예비교사는 전문성 계발, 학습자에 대한 지식, 학생관리 및 학급운영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교육요구는 경인지역 4.947, 충청지역 4.182, 강원지역 4.348, 대구지역 4.269로 나타났다. 4개 지역 모두 상위 3개의 우선순위에 전문성 계발이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음악교수역량에 대해 예비초등교사가 인식하는 중요도와 현재 수행 수준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교육요구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인식하는 음악교수역량의 3개 영역별 26개 하위 역량에 대한 중요성과 현재 수행 수준의 평균은 각각 4.25와 3.11로 나타났다. 즉 예비초등교사들은 음악교수역량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역량을 실제 수행하는 수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초등학교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권혁운(2011)의 연구처럼 역량에 따라 중요도 인식에 비해 현재 수행 수준 인식이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는 예비교사의 음악교수역량 강화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각 음악교수역량의 현재 수행 수준 인식이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으로 나타나 예비초등교사의 음악교수역량을 충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역량별 교사교육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위역량별로 높고 낮은 역량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예비초등교사들이 비교적 자신 있는 역량과 그렇지 않은 역량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평가에 대한 지식과 평가계획 및 도구 개발과 같은 평가 관련 음악교수역량은 중요도와 현재 수행 수준의 인식에서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동기부여, 열정, 성실 등과 같은 교수역량은 중요도 인식과 현재 수행 수준 인식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사교육개발자는 예비초등교사들의 음악교수역량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개발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예비교사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음악교수역량에 대해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인식하는 중요도와 현재 수행 수준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기술 및 지식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 수준은 평균 4.16인 반면, 현재 수행에 대한 인식 수준은 평균 2.94로 1.22의 큰 차이를 보였다. 교수 영역의 중요도 인식의 평균은 4.06이지만 현재 수행 수준 인식의 평균은 3.06으로 1.00의 차이를 보였고, 전문성 영역의 중요도 인식은 4.53이지만 현재 수행 수준 인식은 3.34로 1.19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현준(2008)과 권혁운(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예비초등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음악교수역량 수준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예비초등교사들의 음악교수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 수행 수준의 인식 간에 차이가 크고 하위역량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균의 차이가 큰 역량부터 개발을 강화하는 등 예비초등교사들의 실제 수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은 전문성 영역의 하위 역량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현재 수행 수준 인식도 다른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예비초등교사들이 이 하위역량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Spencer와 Spencer(1993)에 의하면, 실제 수행은 인간의 동기, 특성, 자아개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은 실제 상황에서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예비초등교사들은 음악교수활동과 관련하여 동기, 특성, 자아개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교육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넷째, 26개의 하위역량에 대한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의 교육요구의 평균은 4.514로 나타났고, 학습자에 대한 지식(6.790), 전문성 계발(6.765), 상호작용(6.042), 학생관리 및 학급운영(5.936), 리더십 및 협력(5.336)이 상위 5개의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The Locus for Focus Model를 활용한 우선순위는 교과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 음악수업의 구조화, 교수전략 선정, 동기부여, 교수법 및 교수전략 활용, 의사소통, 상호작용, 학생관리 및 학급운영, 전문성 계발의 10개 역량이 제1사분면에 나타났다. Borich의 교육요구도를 통한 우선순위를 The Locus for Focus Model를 활용한 우선순위 영역에 포함된 역량 수만큼 고려한 공통 우선순위 음악교수역량을 살펴보면 최우선순위 역량군은 학습자에 대한 지식, 음악수업의 구조화, 교수전략 선정, 동기부여, 상호작용, 전문성 계발이고, 차순위 역량군은 교과지식, 교수법 및 교수전략 활용, 의사소통, 학생관리 및 학급운영, 평가결과 해석 및 활용, 리더십 및 협력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예비초등교사들은 음악교수역량에 대해 상당히 높은 교육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집중 육성해야 할 역량을 도출하여 이러한 교육요구를 반영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예비초등교사의 음악교수역량 제고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전국 단위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재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설문조사 방법 외 우수 예비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행동사건면접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음악교과 관련 교사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의 전문자질 향상 및 직무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권대봉 (1999). **성인 교육방법론**. 서울: 학지사.
- 권혁은 (2011).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요구 분석. **초등교육연구**, 24(2), 115-134.
- 기영화(200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서울: 학지사.
- 김이경 외 (2004). **교사평가 시스템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정환, 이계연 (2005).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교수 수업 능력 자기평가 방략에 관한 논리적 고찰. **교육평가연구**, 18(3), 19-38.
- 노혜란, 최미나 (2004).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수역량 모델 개발. **직업능력개발연구**, 7(2), 1-28.
- 백순근, 함은혜, 이재열, 신호정, 유예림 (2007). 중등학교 교사의 교수역량 구성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아시아교육연구**, 8(1), 47-69.
- 양지선, 유태명 (2010). 가정과 예비교사의 전문자질 및 실천적 교수역량에 관한 연구. **실과교육연구**, 16(4), 101-124.
- 원효현 (1998). 수행중심의 교사평가 영역 및 요소의 분석. **교육평가연구**, 11(1), 103-126.
- 이병기 (2007). 사서교사의 교수역량 구성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45-65.
- 이창현 (1993). **이용과 충족에서의 ‘기대-가치 충족’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성 검증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임찬빈, 이경언 (2006). **수업평가 매뉴얼: 음악과 기준**.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대연 (2009).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분석에서 우선순위결정 방안 탐색. **교육문제연구**, 35, 165-187.
- 주현준 (2008).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 분석: 경기·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6(1), 101-120.
- 최미영 (2014). 초등교사의 음악교수역량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음악교육공학**, 21, 1-25.
- 최정임 (2002).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실천가이드**. 서울: 학지사.
- Borich, G. D. (1980).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The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3), 39-42.
- Bridge, D. (1996). Competence-based education and training.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0(3), 361-376.

- Gallow, J. J. & Meek, F. L. (1981). Audience uses and gratifications: An expectancy model. *Communication Research*, 8(4), 435-449.
- Mink, O. G., Shultz, J., & Mink, B. P. (1991). *Developing and managing open organizations: A model and method for maximizing organizational potential*. Austin: Somerset Consulting Group, Inc.
- Music Teachers National Association (2004). *What a nationally certified teacher of music should know and be able to do*. Retrieved Oct. 23, 2013, from <http://www.mtnacertification.org/standards>
-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Music (2005). *NASM Handbook 2005-2006*. Reston, VA: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Music.
-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Music (2013). *NASM Handbook 2012-2013*. Reston, VA: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Music.
- National Board of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 (2001). *NBPTS music standards for teachers of students ages 3-18*. Retrieved Oct. 23, 2013, from <http://www.nbpts.org/music-emc>
- Orlich, D. C. (1989). *Staff development: Enhancing human potential*. Boston, MA: Allyn & Bacon.
- Smith, K. S. & Simpson, R. D. (1995). Validating teacher competencies for faculty members in higher education: A national study using the delphi method. *Innovative Higher Education*, 19, 223-234.
- Spencer, L. M. & Spencer, S. M.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John Wiley & Sons, INC.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al Needs Analysis of Preliminary Elementary School Teachers for Music Teaching Competency

Mi Young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ducational needs of preliminary elementary school teachers for music teaching competency.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to 175 preliminary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were seniors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ith specialization of music education and have just finished their student teaching. A total of 144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136 questionnaires among them were analyzed except the questionnaires that were answered incomplete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erceived importance levels of music teaching competency were higher than the current performance levels of music teaching competency.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the perceived importance levels and the current performance levels. Third, preliminary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d relatively higher perceived importance levels and current performance levels in sub-competencies of the professionalism domain than other competencies. Last, preliminary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d the high educational needs on the music teaching competency according to knowledge of students, structuralization of music class, selection of teaching strategies, motivation, interaction with students, professional growth from the highest order.

Key words: music teaching competency, preliminary elementary school teacher, educational needs analysis, elementary music education

투고일: 2015년 2월 26일, 심사(수정): 4월 22일(4월 27일), 게재확정일: 5월 13일